군의원 주민 소환 갈등 재점화

장성군 추진위 서명 운동 나서 … 곡성서도 부의장 소환 추진

농업관련 예산 삭감·의정비 과다 인상에 반발

장성군에서 시작된 군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곡성군으로 확산된 가운데 진정기미를 보이던 장성군 소환운동마저 재점화 되고 있다.

장성군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장성 군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진행해 온 장성군의회와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명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를위해 이날 장성군선관위에 '서명권자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4일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앞서 곡성군 주민소환운동추진위원회도 곡성군선관위에 소환청구인대표자 교부신청을 마치고 지난달 29일부터 곡성군의회 김모(48) 부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환 추진 배경=장성과 곡성 모두 군의회의 농업관련 예산삭감과 의정비 과다인상이 공통적인 소환추진 배경이다.

장성군의회는 지난달 21일 농업관련 예산 28억50만원을 포함해 총 44억66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으며 의정활동비는 35% 인상했다.

곡성군의회도 농업예산을 중심으로 40억원의 예산을 삭감했고 자신들의 의정활동비는 44%나 올리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장성군의 경우 지난해 12월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군수와 군의회의 갈등이 치유되지 않으면서 당시 선거운동에 참여한 주민들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이 결국 소환운동으로 폭발했다.

곡성군의 경우 군의원 개인의 비리 의혹도 주민소환에 한 몫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군의원 7명 가운데 1명만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곡성군추진위는 소환이유 가운데 하나로 해당 의원의 한우특화사업 개입의혹을 들고 있다.

▲전망 및 일정=장성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예산삭감과 의정비 인상에 대해 "빠른시일내 삭감된 예산을 재의결하고 인상한 35%의 의정비중 일부를 사회환원 사업에 사용한다"는데 추진위와 군의회가 합의했다.

다만 마지막 합의문 문구 조율과정에서 결렬됐기 때문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러나 곡성군은 해당 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워낙 강해 의외로 소환 철회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현행 주민소환법상 군의원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20%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이상을 얻어야 된다.

따라서 1차 관문인 유권자 2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총선전 60일이내에는 서명작업을 할 수 없어 오는 8일까지 서명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서명작업이 늘어지면서 소환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남도 좋은 식단 음식문화 개선

화순군 그릇 등 보급

화순군이 '남도 좋은 식단'을 보급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남도 좋은 식단'교육을 갖고 동영상물을 상영했다.

또 수림정 등 모범음식점 5개소를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로 선정하고 유관기관에 홍보물을 배부했다.

화순군은 '남도 좋은식단 실천 업소'에 대해 개인별 상차림을 위한 소형찬기와 물컵, 수저받침, 세팅지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남도 좋은 식단'= ▲한번 제공된 음식의 재사용 금지(된장, 젓갈, 밑반찬 등) ▲소형 찬기에 개인별 반찬 제공 ▲찌개·전골류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앞접시와 국자, 빈그릇 제공 등 남는 음식물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식단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함평 무지개 가래떡 인기 설을 앞두고 함평에서 생산되는 '함평천지 웰빙 무지개 가래떡'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함평천지 무지개 가래떡은 쌀과 복분자, 단호박, 쑥, 백년초, 감, 흑미, 자색고구마 등 7가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천연 빛깔을 내고 방부제를 전혀 넣지 않아 건강에도 좋다. /연합뉴스

남양유업 나주공장 직원 채용

지원자 몰려 '60 대 1' 경쟁률

70명을 뽑는 남양유업 나주공장 직원 채용에 4천200여명이 지원해 6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신규 사원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4천200여명이 몰려 인사 담당부서가 1차 합격자 선정을 위해 철야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지원자가 몰린 것은 지역 취업난이 극심한데다 회사 인지도가 높은 점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모집 직종이 생산직 사원인데도 초임 연봉이 2천500만원 수준으로, 대졸 학력을 고졸로 낮춘 지원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양유업은 서류 검토작업을 마치고 4일 오후 6시 1차 합격자를 발표한다.

정의국 나주공장 건설단장은 "1차로 150여명을 선발 한 뒤 2차 면접 과정을 거쳐 70여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나주공장은 공장 착공 당시부터 지역 유력인사들이 인력 채용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등 근거없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나주공장은 금천면 촌곡리 10만2천㎡ 부지에 719억원을 들여 우유생산공장과 물류 창고 등을 갖추고 오는 3월 정상 가동된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한국곤충학회 함평으로 왔다

한국곤충학회가 지난 1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부설 곤충연구소로 이전했다. 곤충학회는 이날 현판식에 이어 나비·곤충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고기성 원광대교수의 특별강연과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곤충학회는 지금까지 고려대학교에 사무실을 두고 곤충관련 학술발표대회 및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와 곤충학회지 발간, 국내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국제 학술교류 지원사업 등을 펴 왔다.

지난 1970년 11월 설립된 한국곤충학회는 국내 대학 교수와 관련 연구소에 재직 중인 곤충학 분야 박사 등 3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석형 군수는 "곤충산업의 메카로 입지를 확고히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발전에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완도 관광카드' 나왔다

음식점·입장료 등 할인 혜택

"완도 관광은 '완도 관광카드'로 하세요"

완도군은 지난달 31일 군민회관에서 OK 캐시백과 완도 관광카드 사업의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선포식을 가졌다.

완도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완도 관광카드'는 지역내 음식점과 숙박업소, 특산물 판매점, 관광지 입장료, 선박 운임, 장보고 축제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고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다.

완도 관광카드 도입으로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가격안정과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모범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관광서비스업의 한 단계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또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피서지의 바가지 요금이 근절돼 '관광 완도'의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카드 가맹점에 가입된 업체는 모범음식업소 25개소를 비롯해 우수숙박업소 14개소, 특산품판매점 5곳 등 총 44개 업소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귀성객에 여수엑스포 홍보

전남도, 유명관광지 36곳 무료개방도

전남도가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제89회 전국체전' 등을 집중 홍보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시·군은 물론 유관 기관, 사회단체 등과 함께 귀성객이 집중되는 연휴 기간에 서광주·목포 등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나들목과 다중 집합장소에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원년으로 삼고 귀성객 상대의 홍보와 함께 개최지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광고도 벌인다.

또 연휴 기간에 도내 유명 관광명소 36곳을 전면 무료 개방하는 한편 섬과 갯벌, 해안선 등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을 바탕으로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와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제89회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

■ 새얼굴

"농업금융 지원 확대 농촌에 활력"

이길재 농협중앙회 해남지부장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길재(55) 신임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장은 "농업금융 지원을 확대해 어려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부임 소감을 밝혔다.

해남출신인 이 지부장은 광주상고와 농협대를 졸업하고 광주하남지점과 풍암동지점장을 거쳐 진도군 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전호금씨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취미는 낚시.

/해남=박진표기자 lucky@